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Approaches to Studying Low Birth Rate in Korea: A Critical Review

나유미* · 김미경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Na, Yu-mi* · Kim, Mi-ky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gsh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dedicated to searching better course of low birth rate study in Korea by carefully analyzing past and present low birth rate researches. For this 179 studies(101 master thesis and 78 journal articles) from 1991 to 2009 were analyzed. Next, using SPSS Win 12.0, the research type, topic,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and method of data analysis were compared to the studies' years of publication. The most frequently applied research approach, topic, sampling method, data collection procedure and data analysis method in the research was found to be a literature study, solution and prevention of low birth rate related policy, literature study, literacy analysis. In conclusion, low birth rate studies should become more diversified in terms of types of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method, and data analysis. Additionally, research topics should become more realistic and specified. Moreover, research results should be verified before they are applied to the policy.

Keywords: Low Birth Rate, Research Tendency

I.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6.0명으로 매우 높았으나 1983년 2.1명, 2000년 1.47명, 2007년에는 1.26명, 2008년에는 1.19명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통계청의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을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44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1000명이 줄었고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전년보다 0.04명이 줄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10).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로이 그리도록 강요할 정도의 지진

과 같은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Agequake’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이현승, 김현진, 2003).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인구 규모의 감소 뿐 아니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불균형 및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인구 구조에 맞게 형성된 교육·의료·복지 서비스·노동 및 산업 체계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 전체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잠재 성장률 저하, 연금부담의 증가,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이경숙 외, 2009).

그러므로 일찍이 저출산의 문제를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그리고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출산율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중심의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양한 출산장려

* Corresponding author : Na, Yu-mi
Tel: 02-3479-0529
E-mail: yum1028@paran.com.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 정책은 성(gender)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유형이며,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해소하여 그 결과로 인해 출산율이 향상되거나 안정되도록 하였다(정윤경, 2007). 1972년에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1974년에는 출산율을 높이고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부모 보험 제도를 통해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 부모가 받는 부모연금 급여와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게 되는 경우에 제공되는 일시적 부모연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1975년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부모 휴가법으로 확대되었고, 1978년에는 이 법이 전면 개정을 통해 육아를 위한 휴직이 직장을 가진 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공보육을 실시하여 기관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가 보육비용의 약 10%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이문옥, 2006). 이와 같이 부모가 함께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의 실행 결과, 현재는 90% 이상의 아버지가 60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있으며("점프코리아", 2010), 한때 1.5명까지 떨어졌던 스웨덴 출산율은 2007년 1.85명으로 높아졌다("유명무실", 2010).

다른 유럽국가보다 일찍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30년에 걸쳐 출산친화 정책을 확립했다.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와 입원비는 100%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각종 보조금, 출산관련휴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스템이 짜여있고 여성이 육아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모를 고용하면 보모에게 지급되는 돈의 일부를 국가의 가족수당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유창호, 2006). 이와 같은 출산친화정책을 통해 프랑스는 1993년 합계출산율이 1.66명까지 떨어지다 2008년에는 2.02명까지 올라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인구감소 피할 수 없다면", 2010). 일본은 1987년 합계 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엔젤플랜이 추진되었으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재정은 사업주, 국가,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 1991년 육아휴직법을 제정하고 기존

의 모성휴직에 더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신신(新新) 엔젤플랜(2005~2009)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 중심이었던 출산 장려정책이 기업과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책이 되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이문옥, 2006). 이에 따라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사상 최저인 1.26을 기록한 뒤, 2008년 기준 1.37명으로 증가되었다("저출산과 전경련의 책임", 2009).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의 문제를 인식하고 2005년에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저출산·고령화에 국가적으로 본격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화 사회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련기구를 수립하였다(장혜경, 2005). 2006년 7월,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새로마지 플랜"이라 이름 붙여진 이 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2006년~2010년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2011~2012년에는 출산율을 회복하여 고령화 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김미숙, 2009), 이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저출산 관련 연구들이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강선식, 2009; 김도성, 2009; 김도영, 2009; 신태영, 2008; 이정미, 2005; 유계숙, 2009)와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연구(김형준, 2008; 박바름, 2003; 안정인, 2006; 유창호, 2006; 정윤경, 2007; 조성혜, 2007; 조희정, 2007; 황혜원, 2004)이거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박은영, 2007; 서상록, 2009; 이미란, 2008; 이윤희, 2006; 정세훈, 2007), 저출산에 대한 대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거나(김혜원, 2007; 박길진, 2008; 박화숙, 2006; 송정희, 2007; 오정균, 2007; 이연주, 2008; 이은민, 2009; 정연숙, 2006; 조에스터, 2008), 출산과 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김윤성, 2007; 김혜환, 2008; 이경숙 외, 2009; 장진경, 2005; 정미라, 장영희, 2006; 조윤정, 2006; 황지영, 2007)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으며 저출산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저출산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Kuhn(1974)의 지적처럼 그동안 이루어져 왔

던 연구들의 ‘세계관’이며 연구수행의 틀인 패러다임을 알고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대체할 저출산 연구 방법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정책에 관한 지식의 주요한 진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저출산 관련 연구수행의 틀인 패러다임을 알아보고 지배적 패러다임을 대체할 연구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동향 분석 연구를 하고자 한다. 저출산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유형, 주제, 대상, 자료수집, 그리고 자료분석방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확장하고 보완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되어진 석·박사 논문과 국내 학술지의 저출산 관련 논문 179편을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연구 실태와 동향을 연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의 정립과 내실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에 대한 관심과 시대적 요구가 대두되고,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저출산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관련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앞으로의 다양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여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저출산 관련 논문의 연구유형별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저출산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저출산 관련 논문의 연구대상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저출산 관련 논문의 자료수집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5] 저출산 관련 논문의 자료분석방법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에서 ‘출산 정책’과 ‘저출산’을 keyword로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수록된 논문을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함께 검토하여 선별하였다. 이를 통해 총 179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발행연도에 따른 연구논문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논문의 발행연도에 따른 연구논문 수

| 발행연도 | N(%) | | 계 |
|------|-----------|----------|----------|
| | 석·박사 논문 | 학술지논문 | |
| 1991 | 1(0.6) | 0(0) | 1(0.6) |
| 1998 | 0(0) | 1(0.6) | 1(0.6) |
| 2000 | 0(0) | 0(0) | 0(0) |
| 2001 | 0(0) | 0(0) | 0(0) |
| 2002 | 1(0.6) | 4(2.2) | 5(2.8) |
| 2003 | 2(1.1) | 3(1.7) | 5(2.8) |
| 2004 | 3(1.7) | 6(3.4) | 9(5.0) |
| 2005 | 10(5.6) | 23(12.8) | 33(18.4) |
| 2006 | 22(12.3) | 15(8.4) | 37(20.7) |
| 2007 | 25(14.0) | 11(6.1) | 36(20.1) |
| 2008 | 18(10.1) | 9(5.0) | 27(15.1) |
| 2009 | 19(10.6) | 6(3.4) | 25(14.0) |
| 계 | 101(56.4) | 78(43.6) | 179(100) |

<표 1>에 따르면, 분석대상 논문은 1991년 1편(0.6%), 1998년 1편(0.6%), 2002년 5편(2.8%), 2003년 5편(2.8%), 2004년 9편(5.0%), 2005년 33편(18.4%), 2006년 37편(20.7%), 2007년 36편(20.1%), 2008년 27편(15.1%), 2009년 25편(14.0%)으로 총 분석대상 논문은 석·박사 논문 101편(56.4%), 학술지 논문 78편(43.6%)이었다.

2. 분석 기준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선정을 위해 연구방법 및 연구동향 관련 선행 연구(김지영, 2006; 양옥승, 1997; 이효정 외, 2007; 정설희 외, 2009; 한태숙 외, 2005) 고찰을 통해 분석기준을 구성하고, 분석기준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내용 검토 후 수정·보완하여 분석 기준을 구성하였다. 분석 기준은 크게 연구유형,

연구주제, 연구대상, 자료 수집방법, 그리고 자료 분석방법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분석 기준에 따라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1) 연구유형

연구유형은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문헌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양적 연구의 세부적 항목은 조사연구, 상관연구, 관찰연구, 실험연구이며,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와 문화기술학적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연구주제

연구물의 주제 분류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협의를 거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출산 정책,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 출산과 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별 동향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범주는 출산을 결정요인 분석, 정책, 직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저출산 정책의 범주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다른 나라와의 저출산 정책 비교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셋째,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의 범주는 여성 정책, 보육 및 교육정책, 가족정책, 사회복지 정책, 인구 정책, 경제정책, 법률정책, 방향성 모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넷째, 출산과 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의 범주는 기혼자의 출산·재출산 인식, 미혼자의 결혼·출산 인식, 기혼자와 미혼자의 출산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분석기준과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내용 분석기준과 하위범주

| 범주 | 연구내용 분석기준 | 연구내용 분석기준의 하위범주 |
|----|-------------------|--|
| 1 |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출산을 결정요인 분석, 정책, 직장 |
| 2 | 저출산 정책 | 정부의 저출산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다른 나라와의 저출산 정책 비교 |
| 3 |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 | 여성정책, 보육 및 교육정책, 가족정책, 사회복지 정책, 인구정책, 경제정책, 법률정책, 방향성 모색 |
| 4 | 출산과 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 | 기혼자의 출산·재출산 인식, 미혼자의 결혼·출산 인식, 기혼자와 미혼자의 출산 인식 |

3)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기혼자, 미혼자, 임신부, 정책 참여자, 기혼자와 미혼자, 관련 정책, 기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4) 자료 수집방법

자료 수집방법을 양적연구, 질적 연구, 문헌연구로 분류하였다. 양적연구의 수집방법은 질문지법, 실험법, 검사법, 관찰법으로, 질적 연구의 수집방법은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으로 분류하였다.

5)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을 ①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 통계 중심의 기초분석, ② 카이검증, t검증, 분산분석, 공분산분석의 차이 검증, ③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관계검증, ④ 문헌분석, ⑤ 질적분석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절차

1) 자료 수집

KERIS에서 ‘출산정책’과 ‘저출산’을 keyword로 1991년부터 2009년에 이루어진 석·박사 학위논문 101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78편, 총 179편을 수집하였다.

2) 예비 연구

논문의 분석 준거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고 연구자간의 분석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고 예비 분석을 통해 내용 분석과 연구방법의 준거를 조정하였다.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가 논문을 분석하여 비교해 본 결과, 분석자간의 일치도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

예비 연구를 통해 수정된 준거로 179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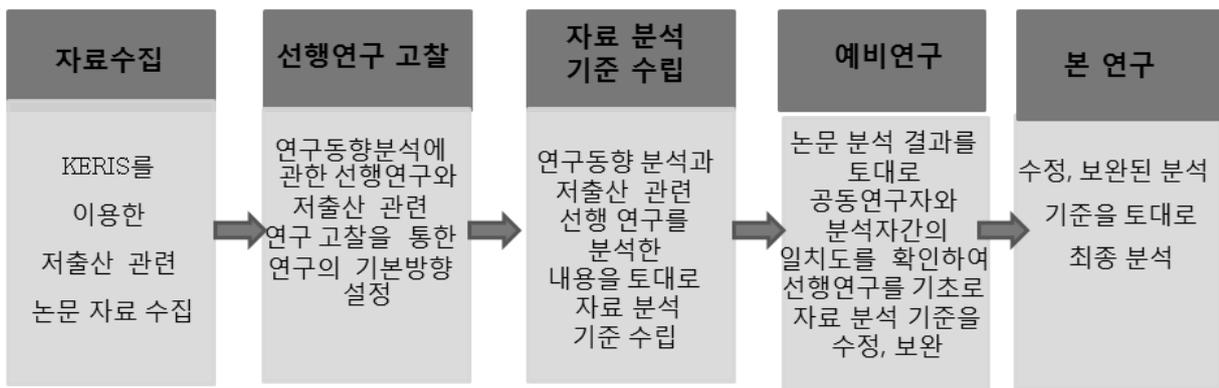
저출산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수집, 선행연구 고찰, 자료 분석 기준 수립, 예비 연구, 본 연구의 단계를 거쳤으며, 자세한 분석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관련 논문 연구유형

저출산에 대한 논문의 연구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림 1] 분석 절차

4. 자료 분석방법

저출산 관련 논문 179편을 분석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 12.0을 이용하여 발행년도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 자료 분석방법, 연구주제의 경우 다중응답분석 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유형은 문헌연구로 105편(58.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가 60편(33.5%)으로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비중 있게 이루어졌다. 반면, 상관연구 4편(2.2%), 관찰연구 0편(0%), 실험연구 1

<표 3> 발행년도에 따른 연구유형

N(%)

| 연구유형 \ 년도 | 1990년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조사연구 | 0(0) | 0(0) | 1(0.6) | 0(0) | 1(0.6) | 6(3.4) | 14(7.8) | 9(5.0) | 13(7.3) | 16(8.9) | 60 (33.5) |
| 상관연구 | 0(0) | 0(0) | 0(0) | 0(0) | 0(0) | 1(0.6) | 0(0) | 1(0.6) | 0(0) | 2(1.1) | 4(2.2) |
| 관찰연구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실험연구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6) | 0(0) | 1(0.6) |
| 질적연구 | 0(0) | 0(0) | 0(0) | 0(0) | 0(0) | 3(1.7) | 3(1.7) | 1(0.6) | 2(1.1) | 0(0) | 9(5.0) |
| 문헌연구 | 2(1.2) | 0(0) | 4(2.2) | 5(2.8) | 8(4.5) | 23(12.8) | 20(11.2) | 25(14.0) | 11(6.1) | 7(3.9) | 105 (58.7) |
| 계 | 2(1.2) | 0(0) | 5(2.8) | 5(2.8) | 9(5.0) | 33(18.4) | 37(20.7) | 36(20.1) | 27(15.1) | 25(14.0) | 179 (100) |

편(0.6%), 질적연구 9편(5.0%) 등은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관련 연구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정책의 실효성 등을 알아보는 조사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저출산 관련 연구들이 1990년대와 2000년 초기에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조사연구와 상관연구, 질적연구의 비율이 높아져 2009년에는 조사연구가 16편(8.9%)으로 문헌연구 7편(3.9%)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출산 관련 논문 연구주제

저출산에 대한 논문의 연구주제를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이 90편(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4편(25.7%), 저출산 정책 48편(22.9%),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18편(8.6%)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세부 주제에서는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이 45편(83.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책 4편(7.4%), 직장 5편(9.3%)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출산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김승권, 2004; 김홍배, 2008; 서신수, 2007; 신효영, 2009; 위점애, 2007; 이미란, 2008; 이윤희, 2006; 이인숙, 2005; 채구묵, 2005; 황해범, 2006)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육아지원정

<표 4> 발행년도에 따른 연구주제

N(%)

| 연구유형 | 년도 | | | | | | | | | | | 계 |
|-------------------|--------|------|--------|--------|---------|----------|----------|----------|----------|----------|----------|---|
| | 1990년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0(0) | 0(0) | 0(0) | 2(1.0) | 4(1.9) | 7(3.3) | 13(6.2) | 1(6.7) | 10(4.8) | 4(1.7) | 54(25.7) | |
| 저출산 정책 | 2(1.0) | 0(0) | 3(1.4) | 2(1.0) | 3(1.4) | 5(2.4) | 8(3.8) | 9(4.3) | 7(3.3) | 9(4.3) | 48(22.9) | |
|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 | 0(0) | 0(0) | 2(1.0) | 3(1.4) | 6(2.9) | 19(9.0) | 21(10.0) | 18(8.6) | 12(5.7) | 9(4.3) | 90(42.9) | |
| 출산과 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 | 0(0) | 0(0) | 0(0) | 0(0) | 0(0) | 5(2.4) | 4(1.9) | 1(0.5) | 3(1.4) | 5(2.4) | 18(8.6) | |
| 계 | 2(1.0) | 0(0) | 5(2.4) | 7(3.3) | 13(6.2) | 36(17.1) | 46(21.9) | 42(20.0) | 32(15.2) | 27(12.9) | 210(100) | |

<표 5> 발행년도에 따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부주제

N(%)

| 연구유형 | 년도 | | | | | | | | | | 계 |
|------------|--------|------|------|--------|--------|---------|----------|----------|----------|--------|----------|
| | 1990년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출산율 결정요인분석 | 0(0) | 0(0) | 0(0) | 2(3.7) | 4(7.4) | 7(13.0) | 13(24.1) | 11(20.4) | 6(11.1) | 2(3.7) | 45(83.3) |
| 정책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2(3.7) | 0(0) | 2(3.7) | 4(7.4) |
| 직장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1.9) | 4(7.4) | 0(0) | 5(9.3) |
| 계 | 0(0) | 0(0) | 0(0) | 2(3.7) | 4(7.4) | 7(13.0) | 13(23.1) | 14(25.9) | 10(18.5) | 4(7.4) | 54(100) |

책이 자녀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도영, 2009), 출산의도의 영향요인을 중앙정보의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김도성, 2009), 지역별 차별출산력 분석을 통한 저출산의 이해를 알아본 연구(유삼현, 2007), 가임여성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인식과 출산의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김오현, 2007)가 있다. 직장이 출산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직장여성의 저출산 요인분석 연구(이연주, 2008; 이진, 2008),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를 살펴본 연구(마미정, 2008), 여성의 경제활동이 이상 자녀수와 기대자녀수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현재은, 2007) 등이 있다. 저출산 정책의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저출산 정책의 세부주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26편(54.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이 18편(37.5%),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이 2편(4.2%)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정책 분석 연구는 저출산 현황과 우리나라의 정책에 관한 연구(박희수, 2009; 배민환, 2007; 윤옥화, 2004; 이문옥, 2006; 이은민, 2009; 정연숙, 2006; 정구진, 2006; 최문숙, 2007)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연구(김미숙, 2009; 김영순, 2009; 김정례, 2005; 박길진, 2008; 오정균, 2007; 원숙연, 2005; 채정기, 2009)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석과 역할

<표 6> 발행년도에 따른 저출산 정책 세부주제 N(%)

| 연구유형 | 년도 | 1990년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 | | | | | | | | | | | |
| 정부 | | 1(2.1) | 0(0) | 1(2.1) | 1(2.1) | 1(2.1) | 3(6.3) | 3(6.3) | 4(8.3) | 3(6.3) | 9(18.8) | 26 (54.2) |
| 지방자치단체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2(4.2) | 0(0) | 2(4.2) |
| 다른 나라 | | 1(2.1) | 0(0) | 2(4.2) | 1(2.1) | 2(4.2) | 2(4.2) | 5(10.4) | 5(10.4) | 2(4.2) | 0(0) | 18 (37.5) |
| 계 | | 2(4.2) | 0(0) | 3(6.3) | 2(4.2) | 3(6.3) | 5(10.4) | 8(16.7) | 9(18.8) | 7(14.6) | 9(18.8) | 48 (100) |

<표 7> 발행년도에 따른 저출산에 대한 대안 및 방향 세부주제 N(%)

| 연구유형 | 년도 | 1990년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 | | | | | | | | | | | |
| 여성정책 | | 0(0) | 0(0) | 0(0) | 0(0) | 1(1.1) | 5(5.6) | 1(1.1) | 1(1.1) | 2(2.2) | 0(0) | 10 (11.1) |
| 보육 및 교육정책 | | 0(0) | 0(0) | 1(1.1) | 1(1.1) | 0(0) | 2(2.2) | 7(7.8) | 4(4.4) | 3(3.3) | 5(5.6) | 22(24.4) |
| 가족정책 | | 0(0) | 0(0) | 0(0) | 0(0) | 0(0) | 3(3.3) | 2(2.2) | 1(1.1) | 2(2.2) | 1(1.1) | 9(10.0) |
| 사회복지정책 | | 0(0) | 0(0) | 0(0) | 0(0) | 0(0) | 3(3.3) | 2(2.2) | 0(0) | 2(2.2) | 0(0) | 7(7.8) |
| 인구정책 | | 0(0) | 0(0) | 0(0) | 0(0) | 2(2.2) | 0(0) | 2(2.2) | 1(1.1) | 1(1.1) | 1(1.1) | 8(8.9) |
| 경제정책 | | 0(0) | 0(0) | 0(0) | 0(0) | 0(0) | 1(1.1) | 1(1.1) | 2(2.2) | 2(2.2) | 0(0) | 6(6.7) |
| 법률정책 | | 0(0) | 0(0) | 0(0) | 0(0) | 0(0) | 1(1.1) | 0(0) | 1(1.1) | 0(0) | 1(1.1) | 3(3.3) |
| 방향성 모색 | | 0(0) | 0(0) | 1(1.1) | 2(2.2) | 3(3.3) | 4(4.4) | 6(6.7) | 8(8.9) | 0(0) | 1(1.1) | 25(27.8) |
| 계 | | 0(0) | 0(0) | 2(2.2) | 3(3.3) | 6(6.7) | 19(21.1) | 21(23.3) | 18(20.0) | 12(13.3) | 9(10.0) | 90(100) |

에 관한 연구(신효영, 2008; 최종암, 2008)도 소수 이루어졌다. 다른 나라 정책과의 비교 연구로는 조성혜(2007)의 독일의 양육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연구, 김형준(2008)의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 비교연구, 황혜원(2004)의 영국·프랑스·일본의 출산 경향 분석, 조희정(2007)의 스웨덴, 프랑스, 일본의 정책을 통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박바름(2003)의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정윤경(2007)의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안정인(2006)의 일본의 엔젤플랜 고찰을 통한 한국의 보육정책 방향 탐색 연구 등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였으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출산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출산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저출산에 대한 대안 및 방향에 대한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저출산에 대한 대안 및 방향의 세부주제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한 연구가 25편(2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 및 여성정책 22편(24.4%), 여성정책 10편(11.1%), 가족정책 9편(10.0%), 인구정책 8편(8.9%), 사회복지정책 7편(7.8%), 경제정책 6편(6.7%), 법률정책 3편(3.3%)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은 여성과 관련이 깊으며, 여성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이루어진 저출산과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 정책과 여성정책과의 관계성과 방향성을 살펴본 연구(김인춘, 2008; 장혜경, 2004),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을 한 연구(김향숙, 2008; 이재경, 2005), 여성취업 활성화 관점에서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박명신, 2005),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관에 따

른 정부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조에스더, 2008),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최현수, 2005)가 있다.

저출산을 보육과 교육적 정책으로 접근한 연구는 저출산 요인과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과제(강복화, 2003; 나진구, 2009; 남기동, 2005; 박하숙, 2006; 오순희, 2006; 이정미, 2005; 한준상, 2006)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시대가 요구하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전망(이숙희, 2006),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목표와 교육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김남희, 2006; 윤인경 외, 2007)와 저출산 시대 학교의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연구(김학준, 2008; 현봉추, 2008)가 이루어졌다.

저출산과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과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김정옥, 2005; 손홍숙, 2005; 장혜경, 2004)를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저출산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 사회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안 연구(백정현, 2005)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조영자, 2005) 등이 있다.

저출산과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바라본 연구(김인춘, 2008)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김수연, 2004; 유영학, 2004; 정연숙, 2006)가 이루어졌다. 저출산과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연구(윤종훈, 2006)와 저출산 가계의 재무구조분석(박진영, 2008),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이선주 외, 2007), 자녀의 양육비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서지희, 2005)가 이루어졌다.

저출산과 법률정책에 대한 연구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연구(최혜지, 2005)와 우리나라의 저

<표 8> 발행년도에 따른 출산·결혼·저출산에 대한 인식 세부주제

N(%)

| 연구유형 | 년도 | | | | | | | | | | |
|----------------|--------|------|------|------|------|---------|---------|--------|---------|---------|---------|
| | 1990년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기혼자의 출산·저출산인식 | 0(0) | 0(0) | 0(0) | 0(0) | 0(0) | 2(11.1) | 2(11.1) | 0(0) | 1(5.6) | 1(5.6) | 6(33.3) |
| 미혼자의 결혼·출산 인식 | 0(0) | 0(0) | 0(0) | 0(0) | 0(0) | 2(11.1) | 2(11.1) | 1(5.6) | 1(5.6) | 2(11.1) | 8(44.4) |
| 기혼자와 미혼자의 출산인식 | 0(0) | 0(0) | 0(0) | 0(0) | 0(0) | 1(5.6) | 0(0) | 0(0) | 1(5.6) | 2(11.1) | 4(22.2) |
| 계 | 0(0) | 0(0) | 0(0) | 0(0) | 0(0) | 5(27.8) | 4(22.2) | 1(5.6) | 3(16.7) | 5(27.8) | 18(100) |

출산 대응법제와 과제 연구(조성혜, 2007),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법제에 대한 연구(선민정, 2009)가 있다. 또한 저출산의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김미숙, 2009; 김승권, 2004; 김혜원, 2007; 송정희, 2007; 오정균, 2007; 윤옥화, 2004; 정재수, 2007; 조희정, 2007; 최문숙, 2007; 한선영, 2005)가 많이 이루어졌다. 출산·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출산·결혼·재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세부주제를 분석한 결과, 미혼자의 결혼·출산 인식 8편(44.4%), 기혼자의 출산·재출산 인식 6편(33.3%), 기혼자와 미혼자의 출산 인식 4편(22.2%)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혼자의 출산·재출산 인식에 대한 연구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본 권혜진(2009), 조에스더(2008)의 연구와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본 김정숙(2006)의 연구, 저출산 시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를 분석한 한정환(2005)의 연구, 저출산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생각을 심층 면접한 신은숙(2005)의 연구, 기혼모의 재출산 의향을 알아본 김중식(2006)의 연구가 있다.

미혼자의 결혼·출산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혼남녀의 결혼·출산·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연구(권형례, 2009; 장진경, 2005)와 대학생의 출산의향과 결혼관·자녀관에 대한 인식 연구(김혜환, 2008; 이경숙 외, 2009; 이수진, 2005; 정미라·장영희, 2006; 조윤정, 2006; 황지영, 2007)가 있다. 특히 김혜환(2008)의 연구는 중학생과 미혼남녀의 가족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연구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신효영, 2009; 채정기, 2009)와 출산과 결혼에 영향을 주는 여성의 인식과 관계에 대한 연구(이미란, 2008; 조혜자, 방희정, 2005)가 있다.

3. 저출산 관련 논문 연구대상

저출산에 대한 논문의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은 관련정책이 106편(5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자 45편(25.1%), 기혼자와 미혼자가 10편(5.6%), 미혼자 9편(5.0%)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참여자,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도 있었다.

기타 대상에는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저출산 관련 연구는 출산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기혼자와 미혼자, 임신부와 정책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효과와 인식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저출산 관련 논문 자료수집 방법

저출산에 대한 논문의 자료수집방법을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9> 발행년도에 따른 연구대상

N(%)

| 연구유형 | 년도 | 1990년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 기혼자 | 0(0) | 0(0) | 1(0.6) | 0(0) | 0(0) | 7(3.9) | 11(6.1) | 8(4.5) | 10(5.6) | 8(4.5) | 45(25.1) |
| 미혼자 | 0(0) | 0(0) | 0(0) | 0(0) | 0(0) | 1(0.6) | 2(1.1) | 2(1.1) | 2(1.1) | 2(1.1) | 9(5.0) | |
| 임산부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6) | 1(0.6) | |
| 정책참여자 | 0(0) | 0(0) | 0(0) | 0(0) | 0(0) | 0(0) | 2(1.1) | 1(0.6) | 1(0.6) | 1(0.6) | 4(2.2) | |
| 기혼자+미혼자 | 0(0) | 0(0) | 0(0) | 0(0) | 0(0) | 1(0.6) | 0(0) | 1(0.6) | 3(1.7) | 5(2.8) | 10(5.6) | |
| 관련정책 | 2(1.2) | 0(0) | 4(2.2) | 5(2.8) | 9(5.0) | 23(12.8) | 21(11.7) | 23(12.8) | 11(6.1) | 8(4.5) | 106(59.2) | |
| 기타 | 0(0) | 0(0) | 0(0) | 0(0) | 0(0) | 1(0.6) | 1(0.6) | 1(0.6) | 1(0.6) | 0(0) | 4(2.2) | |
| 계 | 2(1.2) | 0(0) | 5(2.8) | 5(2.8) | 9(5.0) | 33(18.4) | 37(20.7) | 36(20.1) | 27(15.1) | 25(14.0) | 179(100) | |

〈표 10〉 발행년도에 따른 자료수집방법

N(%)

| 연도 연구유형 | 1990 년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질문지법 | 0(0) | 0(0) | 1(0.5) | 0(0) | 1(0.5) | 7(3.8) | 15(8.1) | 9(4.9) | 13(7.0) | 16(8.6) | 62 (33.5) |
| 실험법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5) | 0(0) | 1(0.5) |
| 검사법 | 0(0) | 0(0) | 0(0) | 0(0) | 0(0) | 0(0) | 1(0.5) | 2(1.1) | 0(0) | 0(0) | 3(1.6) |
| 관찰법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참여관찰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심층면접 | 0(0) | 0(0) | 0(0) | 0(0) | 0(0) | 3(1.6) | 3(1.6) | 1(0.5) | 2(1.1) | 1(0.5) | 10(5.4) |
| 문헌연구 | 2(1.0) | 0(0) | 4(2.2) | 5(2.7) | 8(4.3) | 24(13.0) | 19(10.3) | 27(14.6) | 11(5.9) | 9(4.9) | 109(58.9) |
| 계 | 2(1.0) | 0(0) | 5(2.7) | 5(2.7) | 9(4.9) | 34(18.4) | 38(20.5) | 39(21.1) | 27(14.6) | 26(14.1) | 185(100) |

<표 10>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문헌연구 109편(58.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질문지법 62편(33.5%), 심층면접 10편(5.4%), 검사법 3편(1.6%), 실험법 1편(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찰법, 참여관찰의 자료수집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표 3>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의 약 92%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양적 연구의 주요 자료수집방법인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를 통한 자료수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질문지법을 사용한 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은 200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저출산 관련 논문 자료분석방법

저출산에 대한 논문의 자료분석방법을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분석방법은 문헌분석 105편(43.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 통계중심의 기초분석 60편(24.7%), 카이검증, t검증, 분산분석, 공분산 분석의 차이검증 44편(18.1%), 상관분석, 회귀분석의 관계검증 24편(9.9%), 질적분석 10편(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연구 중 문헌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헌분석의 자료분석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질문지법을 통한 기초분석과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는 차이검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되어진 석·박사 논문과 국내 학술지의 저출산 관련 논문 179편을 대

〈표 11〉 발행년도에 따른 자료분석방법

N(%)

| 연도 연구유형 | 1990 년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기초분석 | 0(0) | 0(0) | 1(0.4) | 0(0) | 1(0.4) | 7(2.9) | 12(4.9) | 11(4.5) | 13(5.3) | 15(6.2) | 60(24.7) |
| 차이검증 | 0(0) | 0(0) | 1(0.4) | 0(0) | 1(0.4) | 2(0.8) | 9(3.7) | 8(3.3) | 10(4.1) | 13(5.3) | 44(18.1) |
| 관계검증 | 0(0) | 0(0) | 0(0) | 0(0) | 0(0) | 3(1.2) | 6(2.5) | 5(2.1) | 5(2.1) | 5(2.1) | 24(9.9) |
| 문헌분석 | 2(0.8) | 0(0) | 4(1.6) | 5(2.1) | 8(3.3) | 23(9.5) | 20(8.2) | 25(10.3) | 11(4.5) | 7(2.9) | 105(43.2) |
| 질적분석 | 0(0) | 0(0) | 0(0) | 0(0) | 0(0) | 3(1.2) | 3(1.2) | 1(0.4) | 2(0.8) | 1(0.4) | 10(4.1) |
| 계 | 2(0.8) | 0(0) | 6(2.5) | 5(2.1) | 10(4.1) | 38(15.6) | 50(20.6) | 50(20.6) | 41(16.9) | 41(16.9) | 243(100) |

상으로 저출산 관련 연구 실태와 동향을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관련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유형은 문헌연구로 105편(58.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가 60편(33.5%)으로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비중 있게 이루어졌다. 반면, 질적연구 9편(5.0%), 상관연구 4편(2.2%), 실험연구 1편(0.6%)은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졌으며 관찰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관련 연구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나열하거나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알아보고 분석하는 문헌연구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정책의 실효성 등을 알아보는 조사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윤옥화(2004)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문헌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김미숙(2009)의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역시 정부의 출산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바름(2003)의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정윤경(2007)의 스웨덴·영국·프랑스·독일의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조성혜(2007)의 독일의 양육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연구와 같이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문헌연구나 다른 나라의 출산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관련된 문헌을 통한 기초 연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조사연구와 질적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출산을 앞두고 있는 기혼자와 미혼자들의 출산 여부와 출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어떠한지에 대한 출산 관련자들의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은 무엇이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를 조사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실시한 신호영(2009)의 연구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유수경, 황해익(2007)의 연

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논문들은 1990년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질적 연구방법이 양적 연구에 비해 인간행동의 이면에 있는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도 참여자 관점(Emic perspective)에서 의미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실행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임여성들과 이들의 배우자인 남편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생애사적 연구방법, 문화기술적 연구방법, 대화분석방법, 그리고 이야기 탐구방법 등 다양한 질적 연구를 통해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탐구 주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즉, 기존의 주류연구 전통에서 탈피하여 가정에서의 경험, 현상, 생활체계, 의식, 의미까지 연구하게 됨으로써 저출산의 고민을 새로운,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써 내려감을 통해 저출산 정책 연구의 정체성과 실재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질적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마지 플랜 1단계(2006년~2010년)를 마무리하고 평가 하면서 출산율을 회복하여 고령화 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새로마지 플랜의 2단계(2011년~2012년)의 세부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단순히 우리나라 출산 정책의 방향성을 이룬 중심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정책의 효용성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저출산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이 90편(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4편(25.7%), 저출산 정책 48편(22.9%),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18편(8.6%)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세부 주제에서는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이 45편(83.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직장 5편(9.3%), 정책 4편(7.4%)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의 세부주제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26편(54.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이 18편(37.5%),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이 2편(4.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저출산 정책의 연구 주제는 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것이었으며 각각의

지방 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저출산 정책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이삼익 외(2008)의 연구와 충청남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 신호영(2008)의 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6년 새로마지 플랜의 도입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히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보다는 효과적으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각 지역별로 지역 특수성과 주민 욕구를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대안 및 방향의 세부주제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한 연구가 25편(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 및 교육정책이 22편(24.4%), 여성정책 10편(11.1%), 가족정책 9편(10.0%), 인구정책 8편(8.9%), 사회복지정책 7편(7.8%), 경제정책 6편(6.7%), 법률정책 3편(3.3%)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결혼·제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세부주제에서는 미혼자의 결혼·출산 인식이 8편(44.4%), 기혼자의 출산·제출산 인식이 6편(33.3%), 기혼자와 미혼자의 출산 인식이 4편(22.2%)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관련 연구의 주제 중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및 방향이 90편(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세부주제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방향성 모색 연구가 25편(27.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한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경제적·인식적·정책적으로 종합적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남기동, 2005; 박은미, 2007; 백선희, 2004; 이동환, 2005; 이문옥, 2006; 최문숙, 2007)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중요성, 삶에 있어서의 자녀의 중요성 등에 대한 가치관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선행연구(강경숙 외, 2005; 정성호, 2009; 조윤정, 2006)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연구는 18편(8.6%)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이삼익 외, 2009)에 따르면 22~44세 미혼남성의 23.4%, 미혼여성의 16.9%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데 그쳐 결혼이 더 이상 의무나 숙명이 아닌 선택이라는 태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녀출산 의향 중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응답은 미혼남성 24.2%, 미혼여성 24.1%로 2005년 조사 시의 미혼남성 54.4%와 미혼여성 42.1%보다 현격하게 낮아졌으며 이와

같이 자녀 출산의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에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가 이루어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가족문화 조성방안에 대한 논의와 교육자료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모색하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중요하다.

셋째, 저출산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은 관련정책이 106편(5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자 45편(25.1%), 기혼자와 미혼자가 10편(5.6%), 미혼자 9편(5.0%), 정책참여자,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도 있었다. 기타 대상에는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란(2008)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기존의 저출산 관련 연구는 출산관련 정책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출산에 기여할 미혼자, 임신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정책 참여자,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효과와 인식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신세대들의 가치관, 문화적 고유성, 그리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의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도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문헌연구 109편(58.9%)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질문지법 62편(33.5%), 심층면접 10편(5.4%), 검사법 3편(1.6%), 실험법 1편(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찰법, 참여관찰의 자료수집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의 유형에서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약 92%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양적 연구의 주요 자료수집방법인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를 통한 자료수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질문지법을 사용한 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은 200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은 저출산 관련 문헌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한 대안적 연구 방법으로 보여 진다.

다섯째, 저출산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 분석방법은 문헌분석 105편(43.2%)이었으며, 그 다음으

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기술 통계중심의 기초분석 60편(24.7%), 카이검증, t검증, 분산분석, 공분산분석의 차이검증 44편(18.1%), 상관분석·회귀분석의 관계검증 24편(9.9%), 질적분석 10편(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자료수집방법과 유사한 경우로 저출산 연구 중 문헌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헌분석의 자료분석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질문지법을 통한 기초분석과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는 차이검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관련 연구가 양적 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가임 여성인 신세대 부모의 삶과 문화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집된 자료의 양적 연구는 여성의 직업과 저출산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나 질적 연구에서는 여성의 직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저출산에 표출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경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저출산 관련 연구의 패러다임은 주로 인구학적·경제학적 문제에 따른 출산율 높이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저출산 정책의 우선적인 목적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지만 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율 높이기에 급급하여 가시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모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미는 어떠하며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와 가족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학적 의미 역시 중요하다. 즉, 지금까지 저출산 현상과 그 해결을 ‘수치’로만 바라보는 연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치’로 바라보는 연구의 패러다임으로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저출산 관련 정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미래의 주인공을 낳고 기르는 일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결혼과 출산의 의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 형성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가 함께 담당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보육시설 마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출산휴가 확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와 질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관련 연구의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자료 분석방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주로 이루어져 저출산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미를 탐색 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 등 다양한 연구유형과 자료수집방법, 자료 분석방법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위한 여러 변인과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 관련 연구의 주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및 방향에 많이 치중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는 단편적이고 원론적인 대책제시보다는 여성정책, 보육·교육정책,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 인구정책, 경제정책, 법률정책 등 세부적인 접근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스웨덴의 성(gender)평등을 통한 출산휴직제도의 확립이나 프랑스의 출산친화정책 등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를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와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이루어져 정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저출산, 연구동향

참 고 문 헌

- 강경숙, 변미희, 정은미. (2005).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저출산 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3), 127-145.
- 강복화. (2003).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선식. (2009). 저출산 시대의 한국의 보육정책 방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형례. (2009). 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 (2009).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희. (2006). 사회 현상을 통한 학교 수학의 지도-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교수학습의 구체적 방안. **사회**

- 과학논총**, 22, 35-56.
- 김도성. (2009). 출산의도의 영향요인 분석: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영. (2009).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2009).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2004).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을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27(2), 1-34.
- 김영순. (2009).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현. (2007). 유배우 가임여성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인식과 출산의도와와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성. (2007). 임신부의 재출산 의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춘. (2008).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6(1), 312-345.
- 김정례. (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 (2006).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2005).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과학논총**, 4, 75-87.
- 김중식. (2006). 영아전담어린이집 이용 기혼모의 재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6). 유아 수학평가 도구를 사용한 수학 연구의 동향 분석: 1981년 이후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1), 233-252.
- 김학준. (2008). 저출산시대 도시지역 학생수용계획의 전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초등학교에 적용하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숙. (2008). 출산장려정책의 여성주의적 접근: 1990년대 이후 출산여성의 경험사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준. (2008).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권과 노동권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3(1), 111-134.
- 김혜원. (2007).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환. (2008).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 중등학생과 미혼남녀(20-29세) 실태조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배. (2008). 여성의 출산을 결정요인과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한국지역학회지**, 24(11), 23-37.
- 나진구. (2009).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동. (2005). 저출산 원인과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복지행정연구**, 21, 315-337.
- 마미정. (2008).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치 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길진. (2008).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양육부담과 출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선. (2005).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취업 활성화 관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바름. (2003).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2007). 저출산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복지행정연구**, 23, 317-335.
- 박은영. (2007). 초임부와 배우자의 재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 (2008).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679-692.
- 박희숙. (2006). 보육서비스 발전방향 연구(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수. (2009). 정부 출산장려정책과 재출산 의도에 대한 연구: 보육시설 이용 여성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민환. (2007).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선희. (2004). 사회적 위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월간 복지동향**, 74, 40-43.

- 백정현. (2005).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개선 방안-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회**, 1(16), 81-108.
- 서상록. (2009). 저출산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전국 및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신수. (2007). 출산력 영향요인과 차별출산력의 상관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희. (2005).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실태조사: 12개월에서 36개월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민정. (2009).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관련법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홍숙. (2005).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1), 43-63.
- 송정희. (2007). 저출산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숙. (2005). 제도적 모성에 대한 갈등과 협상으로서의 저출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영. (2008).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석- 충청남도 시, 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4), 205-227.
- 신효영. (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인. (2006). 일본의 엔젤플랜 고찰을 통한 한국의 보육정책 방향 탐색.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 (1997). **유아교육연구방법**. 서울: 양서원.
- 오순희. (2006). 저출산 요인과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과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균. (2007).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숙연. (2005).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와 현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지**, 14(2), 157-189.
- 위점애. (2007).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계숙. (2009).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69-189.
- 유삼현. (2007). 지역의 차별출산력 분석을 통한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수경, 황해익. (2007). 유아교육연구에 나타난 질적 연구논문의 동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27(2), 295-321.
- 유영학. (2004).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 117-129.
- 유창호. (2006). 우리나라 저출산의 지역별 현황과 그 대책: 외국과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옥화. (2004).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방안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인경, 남상준, 차우규, 조병은, 신효식, 권리라. (2007).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의 목표 및 교육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6(2), 89-104.
- 윤종훈. (2006).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월간복지동향**, 95, 44-48.
-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신의진. (2009).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93-108.
- 이동환. (2005).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8, 83-89.
- 이문옥. (2006). 저출산을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란. (2008). 출산행태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 거주 여성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삼식, 박종서, 장보현 (200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2009).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2007). 주요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4), 167-192.
- 이수진. (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 이숙희. (2006). 저출산 시대가 요구하는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전망.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46

- 이연주. (2008). 직장여성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 (2006). 사회적 제요인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민. (2009).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구: 맞벌이 부부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이재경. (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21(3), 133-166.
- 이정미. (2005).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 (2008).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현상에 관한 연구: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승, 김현진. (2003). **늘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서울: 삼성 경제연구소.
- 이효정, 노희연, 김성숙. (2007). 유아수학교육 연구동향 분석: 1996-2006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50, 205-227.
- 장진경. (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 43(11), 165-183.
- 장혜경. (2004).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방향. **젠더리뷰**, 5, 50-54.
- 장혜경. (2005).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사례. **국회도서관보**, 12(12), 통권320호, 13-24
- 정구진. (2006). 저출산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 장영희. (2006). 대학생들의 결혼 및 직업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과 관련 변인 연구. **교육연구**, 41, 91-108.
- 정설희, 임양금, 안진경. (2009). 유아 미술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1998-2008년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297-319.
-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 정세훈. (2007).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분석.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숙. (2006).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2007).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수. (2007). 저출산 해소 방안대책: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혜. (2007). 독일의 양육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한국비교공법학회지**, 18(3), 561-592.
- 조에스더. (2008).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관에 따른 정부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자. (2005). 저출산에 대한 사회복지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윤정. (2006).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자, 방희정. (2005).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95-112.
- 조희정. (2007). 외국정책을 통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스웨덴,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구묵. (2005).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학**, 57(3), 337-361.
- 채정기. (2009). 출산장려정책의 인식에 관한 실태분석.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문숙. (2007).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암. (2008). 저출산 고령사회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수. (2005).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지. (200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월간복지동향**, 80, 42-45.
- 한선영. (2005).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준상. (2006). 저출산 예방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개선에 대하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9-22.
- 한태숙, 김연, 황혜정. (2005). 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분석: 1994-2004. **유아교육연구**, 25(3), 219-238.

- 현봉추. (2008). 저출산 시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수용 정책 모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재은. (2007). 여성의 경제활동이 이상자녀수와 기대 자녀수 간 차이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환. (2005). 저출산 시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 **한국보육학회지**, 5(2), 157-170.
- 황지영. (2007).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해범. (2006).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출생아수 감소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원. (2004). 영국 프랑스 일본의 출산 경향 분석. **사회과학논총**, 26(2), 143-157.
- Kuhn, T. (1974). 'Second thoughts on paradigms': i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theories edited by I. Lakatos & A. Musgrave. (pp. 231-278)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유명무실 '남성 육아휴직' 강제로라도 쓰게 해야. (2010. 2. 23) 매일경제, p. 10
- 인구감소 피할 수 없다면. (2010. 3. 4) 한국경제, p. 38
- 저출산과 전경련의 책임. (2009. 6. 5). 조선일보, p. A30
- 점프코리아 2010-아이 낳고싶은 나라 “현재는 아빠 90% 이상 육아휴직 신청”. (2010. 2. 18). 서울신문, p. 16.
-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010. 2. 24). 통계청, 자료 검색일 2010. 6. 8. 자료출처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aSeq=69802&bmode=read&rowNum=10
- 접수일 : 2010. 06. 29.
수정완료일 : 2010. 08. 10.
게재확정일 : 2010. 08. 16.